

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해고로 인한 운영리스크 증가에 대비해야

□ 보험사들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신용 및 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많은 보험사들이 감원에 나서면서 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운영 리스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.

- 미국의 금융 및 보험산업 해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76%증가하였으며 50명이 넘는 직원의 감원을 발표한 건수가 1월에만 88건이나 발생하는 등, 미국 내 많은 보험사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감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.
- 직원의 해고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, 예를 들어 회사 내 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해고되면서 고급정보나 축적된 지식도 함께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.
- 또한 직원의 수가 줄면서 에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커질 수 있으며 남은 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실수 가능성도 증가할 것임.
- 해직과 함께 회사에 반감을 가진 직원들의 경우 일부러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업체나 고객에게 넘길 수도 있으며 많은 업무지식을 토대로 보험사기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있음.

□ 보험사들은 해직자의 정보유출을 제한하는 단기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- 예를 들어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소수직원의 고급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보험금 지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.
- 회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장치의 도입도 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BI(business intelligence)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직원이 어떤 데이터를 언제 접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임.

(Insurance News Net, 4/23)